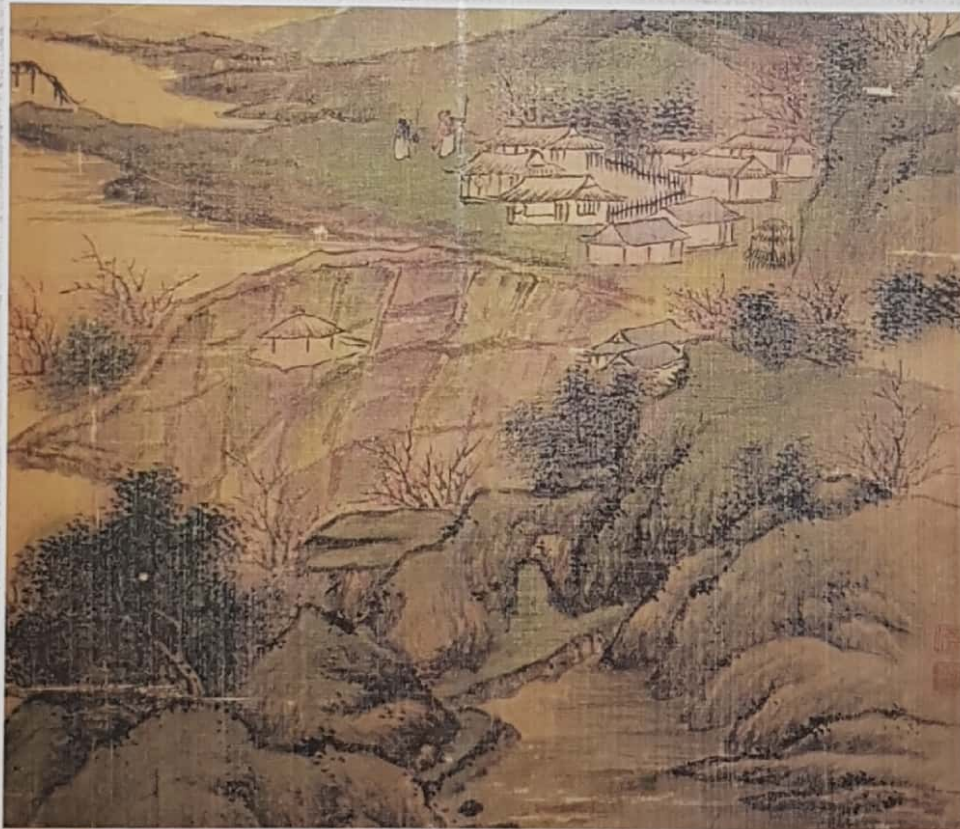


18세기초

# 호남기행

— 「남유록」과 「남행집」 —

이하곤 저 / 이상주 편역



(주)이화문화출판사

## 18세기 초 호남기행

---

인쇄일 : 2003년 11월 5일

발행일 : 2003년 11월 11일

저 자 : 李 夏 坤

편역자 : 李 相 周

편역자 : 李 洪 淵

발행처 : (주)이화문화출판사

등록번호 : 1-1314(1994.10.7)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167-2

(02)738-9880, 732-7096~7

---

定價 35,000원

# 차 례

|                                        |    |
|----------------------------------------|----|
| 하서(賀序) .....                           | 12 |
| 일러두기 .....                             | 14 |
| 이하곤의 호남기행 주요노정도 .....                  | 19 |
| 이하곤의 호남기행과 주요사항 .....                  | 20 |
| 18세기 초 호남기행(湖南紀行) .....                | 23 |
| 1. 서언 .....                            | 23 |
| 2. 이하곤(李夏坤)과 호남여행을 하게 된 경위 .....       | 24 |
| 3. 「남유록(南遊錄)」과 「남행집(南行集)」의 주요 내용 ..... | 26 |
| 1) 당시 호남의 정황과 양반 가문 .....              | 28 |
| 2) 전설 및 유적의 소개 .....                   | 30 |
| 3) 토산(土産)과 생활습속 및 풍요(風謠)의 소개 .....     | 31 |
| 4. 결어 .....                            | 32 |
| ○ 남행기서(南行記序) .....                     | 33 |
| ○ 남행집서(南行集序) .....                     | 36 |
| 「남유록(南遊錄)」과 「남행집(南行集)」 .....           | 37 |
| 1722년 10월 13일 .....                    | 37 |
| 10월 14일 .....                          | 41 |
| 10월 15일 .....                          | 44 |
| 10월 16일 .....                          | 44 |
| 10월 17일 .....                          | 44 |
| 10월 18일 .....                          | 45 |

|               |     |
|---------------|-----|
| 10월 19일 ..... | 47  |
| 10월 20일 ..... | 48  |
| 10월 21일 ..... | 48  |
| 10월 22일 ..... | 54  |
| 10월 23일 ..... | 54  |
| 10월 24일 ..... | 54  |
| 10월 25일 ..... | 54  |
| 10월 26일 ..... | 55  |
| 10월 27일 ..... | 56  |
| 10월 28일 ..... | 59  |
| 10월 29일 ..... | 60  |
| 11월 1일 .....  | 66  |
| 11월 2일 .....  | 70  |
| 11월 3일 .....  | 80  |
| 11월 4일 .....  | 88  |
| 11월 5일 .....  | 94  |
| 11월 6일 .....  | 97  |
| 11월 7일 .....  | 105 |
| 11월 8일 .....  | 105 |
| 11월 9일 .....  | 107 |
| 11월 10일 ..... | 107 |
| 11월 11일 ..... | 109 |
| 11월 12일 ..... | 109 |
| 11월 13일 ..... | 117 |
| 11월 14일 ..... | 133 |
| 11월 15일 ..... | 138 |
| 11월 16일 ..... | 139 |
| 11월 17일 ..... | 151 |
| 11월 18일 ..... | 159 |
| 11월 19일 ..... | 163 |
| 11월 20일 ..... | 172 |
| 11월 21일 ..... | 173 |

|               |     |
|---------------|-----|
| 11월 22일 ..... | 174 |
| 11월 23일 ..... | 174 |
| 11월 24일 ..... | 176 |
| 11월 25일 ..... | 192 |
| 11월 26일 ..... | 199 |
| 11월 27일 ..... | 200 |
| 11월 28일 ..... | 206 |
| 11월 29일 ..... | 220 |
| 11월 30일 ..... | 230 |
| 12월 1일 .....  | 243 |
| 12월 2일 .....  | 246 |
| 12월 3일 .....  | 248 |
| 12월 4일 .....  | 256 |
| 12월 5일 .....  | 259 |
| 12월 6일 .....  | 269 |
| 12월 7일 .....  | 281 |
| 12월 8일 .....  | 288 |
| 12월 9일 .....  | 300 |
| 12월 10일 ..... | 303 |
| 12월 11일 ..... | 305 |
| 12월 12일 ..... | 305 |
| 12월 13일 ..... | 309 |
| 12월 14일 ..... | 309 |
| 12월 15일 ..... | 310 |
| 12월 16일 ..... | 311 |
| 12월 17일 ..... | 312 |
| 12월 18일 ..... | 312 |

돌아오는 길에 만화루(萬化樓)<sup>78)</sup>에서 조금 쉬었다. 민군의 초당(草堂)에 이르러, 한 식경 쯤 앉아 있었다. 또 박자룡(朴子龍)네 집엘 들렀더니, 감사가 내가 우거하는 곳을 들렀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저녁을 먹은 후 감사에게 가서 사례하니, 안주와 과일을 대접하는데, 차린 품세가 지극히 정결했다. 대화하다가 이경(二更)이 되어 돌아왔다. 대본영(大本營) 중군(中軍)<sup>79)</sup> 정문빈 첨지(鄭文彬 僉知)가 찾아와서 김의원(金醫員)에게 침을 맞을 것을 요구했는데, 곧 민군의 문객이며 이름은 진택(振鐸)이다.

## ▣ 전주(全州)

전주(全州)의 특이한 정기 옛부터 왕기(王氣)가 일어,  
호랑이 웅크리고 용이 트림하는 듯 뛰어나다네.  
예로부터 산에선 동(銅)나고 바다에선 소금 고았으며,  
지금은 관방(關防)의 요충지라네.  
숲으로 둘러싸인 촌락엔 대나무 무성하고,  
기름진 시냇가 밭엔 모두 생강을 심었네.  
호남(湖南)의 풍토 특이한 것 더디 깨달으며,  
해질녘에 공진루(拱辰樓)에 올라보네.

### <全州>

完山異氣昔興王, 虎居龍盤地勢長.  
從古銅鹽擅山海, 卽今藩翰<sup>80)</sup>壯關防.  
林深村落多生竹, 土沃溪田盡種薑.  
頓覺南州風壤異, 拱辰樓上倚斜陽.

77) 『포은집』 권 2 「登前奏望景臺」라는 시이다.

78) 만화루(萬化樓) : 최초의 만화루는 화산기슭 향교옆에 1497년(성종 10년) 세워졌는데, 임진왜란 후인 1603년 향교를 지금의 자리로 옮기자, 1627년(인조 5년) 만화루도 이전하였다. 만화루는 지금 향교 외삼문(外三門) 남쪽 전주천(全州川)냇가에 서 있었으나 1913년 철거되어 그 자리에 하마비(下馬碑)만 남아 있다.

79) 중군(中軍) : 조선시대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충무청·총리영·수어영·관리영 등 군영(軍營)의 중 2품 또는 정3품의 벼슬.

80) 변한(藩翰) : 변(藩)은 막는 것. 한(翰)은 근간(根幹), 즉 국가를 수비방위(守備防衛)하는 것

■ 전주(全州)는 견훤(甄萱)이 웅거하던 옛 도읍지이다. 지방인들이 그 한 두 가지 고사(故事)를 아직도 숭상하여 전하고 있어, 그 느낌을 또 읊는다.

아직도 견훤(甄萱)이 활거하던 당시 상상할 수 있으며,  
지금 이곳의 성과 연못(城池) 장엄하네.  
수 많은 집과 누각에 석양이 기울고,  
술한 전쟁치른 산하에 저녁 나팔소리 서글프게하네.  
시들어버린 풀잎만 이미 어지러이 만마곡(萬馬谷)을 뒤덮고,  
찬 구름만 감도는데 오히려 영험하다는 사당에 빌어대네.  
구렁에 철교(鐵橋) 가설한 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이곳의 주민들과 그걸 기이한 일이라 말하네.

고을 동쪽에 만마동(萬馬洞)이 있는데, 세상에 전해오기를 견훤(甄萱)이 이곳에 말을 숨겨놨었다고 한다. 속언(俗諺)에 전해오기를 견훤이 서산 봉우리에 별궁(別宮 : 離宮)을 짓고 남쪽 높은 봉우리에 철교를 가설하여 문득 옛 궁터를 왕래했다고 한다. 이 지방사람들이 돌을 쌓고 사당을 지었는데, 기도를 하면 제법 감응이 있다고 한다.

<全州甄萱舊都也. 土人尙傳其一二故事者, 感而又賦.>  
尙想甄萱割據時, 至今此地壯城池.  
千家樓閣斜陽遠, 百戰山河暮角悲.  
衰草已迷藏馬谷, 寒雲猶護乞靈祠.  
鐵橋架壑眞愚事, 留與居人話作奇.

州東有萬馬洞, 世傳, 甄萱藏馬於此地云. 諺傳, 甄萱, 作離宮於西山峰, 自南高峰架鐵橋, 以便往來舊宮基. 土人壘石爲祠, 有禱輒應.

■ 전주(全州) 풍속토산을 오체(吳體)로 희작한다.  
진퇴격.

전주(全州)라 풍요롭기 팔도에 드물고,  
토속민풍(土俗民風) 과연 서울과 다르네.  
누렁머리 추녀 다리머리(高髻) 틀어올리고,  
뽀얀 얼굴 재롱동이 꼬까웃 입었네.  
전주사람들 평량자(平凉子) 즐겨 쓰고,

저자거리엔 유초나박산(油炒糯薄散)이 풍성해.  
생강으로 담근 김치(薑鬚菹) 그 맛 너무나 좋아,  
북쪽 나그네 새로운 맛에 젖어 돌아가기 싫다네.

<述本州風俗土產戲爲吳體>

進退格<sup>81)</sup>.

全州饒富八道稀, 土俗民風異京師.  
醜女髮黃偏大髻, 狡童面白更鮮衣.  
居人愛戴平涼子, 列肆都排薄散兒.  
薑鬚作菹味最美, 北客新嘗頓忘歸.

## ■ 경기전(慶基殿)에 배알하러가면서의 느낌

경기전(慶基殿)은 태조(太祖)의 진용(眞容 : 肖像)을 모신 곳,  
유적지에다 영정각(影幀閣)을 창건했네.  
솟아오르는 신령한 샘물(靈泉) 쇠뿔개로 덮어 놓았으며,  
아름다운 기운 떠올라 푸른 송림 속에 서려있네.  
햇살이 꽃무늬 벽돌에 비치는데 용좌(龍座)만 바라보고,  
구름이 어실(御室)에 깊어 용안(龍顔)을 가로 막네.  
태조의 신공성덕(神功聖德) 비할 데 없으니,  
요순(堯舜)같은 정치 해동(海東 : 朝鮮)땅에 퍼려하셨네.

경기전(慶基殿) 서쪽에 어정(御井)이 있는데, 둘레를 담으로  
쌓아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지  
못하게 했다. 전주(全州) 성안에  
있는 우물중에 이 우물이 가장  
좋다. 쇠로 뚜껑을 해서 항상 덮  
어 놓는다. 경기전(慶基殿) 안에  
노송이 구불렁구불렁 기어다니



경기전

81) 진퇴격(進退格) : 시를 지을 때 용운(用韻)의 한 격식. 시 한 수가 4운(四韻)일 때 수련(首聯)과 경련(頸聯)을 동운(同韻)으로하고, 함련(頤聯)과 말련(末聯)을 동운(同韻)으로하는 용운법(用韻法).

는 듯한 형상이, 삿갓이나 덮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지극히 기이하다. 이날 참봉(參奉)이 모두 자리를 비워 진용(眞容)을 우러러 참배하지 못했다.

<往謁慶基殿志感>

太祖大王有眞容, 卽從遺址創影宮.  
靈泉湧出金爲盖, 佳氣浮來翠入松.  
日映花顚瞻黼座, 雲深瑣闥隔重瞳<sup>82)</sup>.  
神功聖德知無比, 坐挽唐虞<sup>83)</sup>變海東

宮西有御井, 周遭築垣, 禁人來汲. 城中泉眼中, 此井味最佳. 以鐵爲盖, 常覆之, 宮庭有老松, 盤屈踞巖狀如偃盖,<sup>84)</sup> 極奇. 是日參奉皆不在, 不得瞻拜眞容.

■ 한벽당(寒碧堂)에서 벽위에 있는 쇠구에 차운하다.

이 정자 원래 명승지로,  
오똑한 곳에 자리 잡았으며 고을에  
서도 빼어나다네.  
얼음은 얇게 얼어 연못 빛 맑고,  
하늘엔 구름 끼어 들 경치 그윽하네.  
지금서야 올라보는 이 한벽당(寒碧堂),  
오랜 세월동안 자리잡고 있었네.  
술에 취하여 옷자락 풀어헤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북루에 올라보네.



한벽당

<寒碧堂次壁上韻>

茲亭元勝地, 危構擅雄州.

82) 중동(重瞳): 눈 가운데 두 개의 눈동자가 있는 것. 순(舜)임금의 이름을 중화(重華)라한 것은 겹 눈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태조의 영정을 지칭함.

83) 당우(唐虞): 요(堯)임금이 도(陶)땅에서 살다가 당(唐)땅으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도당(陶唐)이라 일컬음. 순(舜)임금이 요(堯)임금에게 선양받기 전 우(虞)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유우씨(有虞氏)라고 함. 따라서 당우(唐虞)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지칭함.

84) 연개(偃盖): 연송(偃松), 와송(臥松), 입송(笠松)이라고도 함. 소나무 모양이 뚜껑이나 덮개 또는 삿갓모양으로 생긴 소나무를 지칭.

옷을 착용하더니, 국빈을 인도하여 서각문(西角門)을 경유하여 들어가기에, 우리들도 그를 따라가 서합문(西閤門) 밖에 이르렀다. 전복(典僕)이 자물쇠를 열고 또 국빈을 인도하여 경기전 안으로 들어가기에, 우리들은 합문(閤門)밖에 서서 조금 기다렸다. 경기전 중간 남향에 어실(御室) 일간을 만들었다. 조각한 대들보와 붉은 기둥을 사용했으며, 아래를 돌로 벽돌처럼 쌓고 백회(白灰)로 발랐는데, 그 중앙에 진용(眞容)을 봉안했다. 앞에 붉은 색깔의 발을 늘어뜨리고, 좌우에 주홍색 융(絨)으로 만든 끈을 금(金)고리에 매달아놓았다. 국빈이 어실(御室) 서쪽에 친히 서 있고, 전복(典僕)들이 남합문(南閤門)을 활짝 열었으며, 또 2인이 고리를 당겨 발을 걷어 올리고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기에 들어갔다. 제왕(帝王)의 의표(儀表)<sup>636</sup>와 용안(龍顏)의 신령(神靈)한 광채가 빛나고 빛나 감히 우러러 볼 수 없었다. 왼쪽 눈썹언저리가 약간 들뜬 기미가 있는데, 대개 풀로 배접한 것이 세월이 오래되어, 초지(綃紙)가 서로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자연 이와 같이 된 것이니, 이것은 변이(變異)가 아니다. 민간에서 이에 대해 해괴한 말들이 많이 나다니 한탄스럽다. 동쪽으로 10여보 별전(別殿)이 있어 어연(御輦)·어산(御傘)·어도(御刀)를 살펴보았다.

동각문을 거쳐 후원에 들어서니, 그 나무중에 뚝은 감나무(柿漆)가 많았다. 전복이“여름철에 풀이 사람 키 높이로 자라도 절대로 벌레나 뱀 같은 것이 없고, 비록 장마가 졌다 개어도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하니, 또한 지극히 이상하다. 북쪽으로 수십 보 지점에, 우쪽 자란 대나무가 하늘로 치솟아 있어 어둡침침하고 청랭(淸冷)한 것이, 별경(別景)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니, 밖으로부터 바라보면 즉 감춰져 있어, 끝내 이곳에 이런 아름다운 정취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어정(御井)을 살펴보고 돌아와 재실(齋室)에서 식사를 했다.

이언겸(李彦謙)이 돌아가고 다시 국빈(國賓)과 신보(信甫)와 함께 남문으로 나가, 회경루(會慶樓)<sup>637</sup>에 올라 시장을 바라보니, 수 만인이 모여 서 있는 것이 한낮의 종로(鐘路)거리와 같았다.<sup>638</sup> 잡화가 산적해 있는데 평량자(平凉子)<sup>639</sup>와 박산(薄散)이 그 반을 차지했다. 박산유초나(薄散油炒糯)<sup>640</sup>는 쌀밥과 엿을 조합해서 만든다. 목판(木板)으로 종이처럼 고루 얇다랗게 눌러, 네모나게 잘라 점점 타원형으로 하여, 네땃 조각을 겹으로 쌓아 하나의 떡을 만든다.

635) 전복(典僕) : 해당 관아(官衙)에 딸린 종.

636) 일표(日表) : 제왕(帝王)의 의표(儀表). 일(日)은 왕(王)을 뜻함.

637) 회경루(會慶樓) : 지금 전주 시내에 있는 풍남문(豊南門)에 회경루(會慶樓)라는 현액이 성안쪽으로 붙어있었으나, 관찰사 서기손에 의해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이라는 현액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걸려있음.

638) 담헌 다음세대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誌)』 전라도(全羅圖)조에도 전주가 서울과 다른없는 대도시라고 서술하고 있다. “府治人物稠衆, 貨財委責, 與京城無異, 誠一大都會也.”

639) 평량자(平凉子) : 패랭이.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것. 신분이 낮은 사람과 상주(喪主)가 썼다.

640) 유초나박산(薄散油炒糯) : 전주에 거주하는 김종진 박사(金鍾振 博士)는 지금 ‘다시다’라고 불리는 것이 유초나(油炒糯)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 하며, 알록달록하게 고여 좀 잘 사는 집 환갑이나 결혼잔치상에 차린다고 한다. 지금은 와전되어 ‘밥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공사(公私)의 잔치와 고임상에 차려 쓰는데, 오직 전주사람들이 이것을 잘 만들었다.



경기전 태조대왕 진용



경기전내 나무



풍남문(豐南門). 일명 회경루

부인(婦人)은 모두 다리를 틀어올린 머리(高髻)를 하거나, 흑 파란 색 보자기(靑布)를 머리에 둘러쓰는 사람이 있다. 호남지방 풍속에 대저 머리에 청포를 둘러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영하(嶺下)<sup>641</sup>지방이 더욱 심하다. 윤효언(尹孝彦)이 그린 화권(畫卷)에, 머리에 두건을 두른 농촌여인이 나물캐는 상(像)<sup>642</sup>이 있는데, 이것과 지극히 닮았다. 나의 시에 “머리에 무늬 두건 두른 앞마을 아낙네.”<sup>643</sup>라는 시구(詩句)는, 대개 이와 같은 호남의 풍속을 본 바를 읊은 것이다. 방옹(放翁 : 陸游의 號)이 「입촉기(入蜀記)」에 “이릉(夷陵)<sup>644</sup>의 여자(女子)가 모두 푸

641) 영하(嶺下) : 노령(蘆嶺)이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642) 건본담채(絹本淡彩).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의 후손 윤영선(尹泳善) 소장. 또 이와 유사한 그림으로 윤두서(尹斗緒)의 손자 윤용(尹容)이 그린 「협룡채춘(挾龍採春)」이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643) “반포말두전춘녀(斑巾帕頭前村女)”라는 시구는 『두타초』 「남행집」 <남당가(南塘歌)> 기오(其五)에 있다.